

[미스터리 추적] 고하 송진우는 왜 역사교과서에서 사라졌을까?

신성대 논설위원 | 승인 2024.05.08 11:44

송진우는 일제강점기 동안 네 차례나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세 차례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도합 27개월의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최보식의언론=신성대 논설위원]

대한민국역사와미래총서 3

건국의 아버지들

고하 송진우 와 민족운동

김형석 지음



민족의 가슴에 불을 지르다

“정부도 없고 엄혹한 감시와 압박의 일제시대에
오로지 혼자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몸 바친 인물은 고하밖에 없다.” - 위당 정인보

동문선

역사학자 김형석 교수가 쓴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8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일제시기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언론·문화운동을 주도하며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였고, 해방 직후 좌우 이념의 갈등이 극심하던 시기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둔 국가건설에 구심점 역할

을 했던 민족운동가이자 정치사상가였던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1890~1945) 선생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 역사학자 김형석 교수가 쓴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출간을 기념하고 책을 헌정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학문적 성찰을 통해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코자 하는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이 도서출판 동문선과 협력하여 펴낸 '대한민국역사와미래총서'의 세 번째 작업물이자 '건국의 아버지들'로 정의한 첫 번째 인물 평전이다.

위당 정인보가 “정부도 없고 엄혹한 감시와 압박의 일제시대에 오로지 혼자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몸 바친 인물은 고하밖에 없다”고 칭송했던 위대한 독립운동가 송진우, 그는 왜 역사책에서 사라져야했는가?

이 물음을 시작으로 추적에 들어갔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놓았다.

“송진우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었다. 1941년 12월 8일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황국신민화정책을 강요하자 대다수 지도층 인사가 굴복하고 말았지만,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그는 총독부의 강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친일단체 가입은 물론 친일 논설이나 강연, 인터뷰조차 알려진 바가 없다.

오히려 송진우는 일제강점기 동안 네 차례나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세 차례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도합 27개월의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다. 또 백범 김구의 노모 광락원에게 선행을 베풀고, 백야 김좌진의 독립군부대에 군자금을 지원한 일화도 사실로 검증이 된다.

한마디로 독립을 향한 집념을 불태운 민족주의자이자 애국지사다. 문제는 송진우의 행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행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후학들의 불찰이었다.”

저자는 송진우가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였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덧붙여진 갖가지 오해를 벗겨내고, 왜곡되고 폄훼된 그에 대한 공적을 역사적 사실과 자료를 통해 바로세우고 있다.

우리 역사학자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도 만주나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인사들의 활동에는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 일제시기 국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공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인색하다. 아무렴 당시의 '국내'란 곧 '일본'이었니 '독립운동'을 했다가는 제 명대로 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때문에 그들의 독립운동을 '민족운동'이라 불렀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 긴 기간 동안 독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쟁한 업적은 너무 보잘 것이 없다. 국내외에서 보내주는 독립자금으로 연명하는 것 외에 피가 뜨거운 젊은이들 부추겨 폭탄 테러한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자금으로 총포로 무장해서 일본군과 싸운 것이 아니다. 외교적으로도 무능해서 어떤 나라로부터도 '임시정부'로 인정받질 못했다.

사실 해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고달프긴 해도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일제의 감시와 처벌을 받아가면서 구국운동을 하는 것이 백배는 더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단순히 투쟁만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치·경제·산업·금융·언론·문화 등 각 부분을 병행해가면서 민족을 각성·단합·발전시켜 힘을 길러나가야 했으니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항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송진우 선생의 후손들 중 누구도 벼슬길에 나간 적이 없다. 손자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월간조선》(2023년 12월호)과의 대담에서 그 자신도 총리를 두 번, 장관, 대법관, 청와대수석 등 10번도 더 제안을 받았지만 정치에 발을 딛지 않았단다. 덕분에 일부 듣보잡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땀땀거림과 민주항쟁 유공자 완장차고 갖은 방법으로 영화를 누리는 시위꾼들의 농간이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 뭐 묻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 법이니까.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을 읽다보니 온갖 상념이 불쑥불쑥 솟는다. 3.1운동을 비롯하여 일제 시기 국내에서 일어난 온갖 민족운동의 중심에는 반드시 송진우가 있었지 않은가? 그런 송진우를 지우고 한국현대사를 논하다니? 그동안 역사학자들이 무슨 짓을 한 건가? 과연 누가 진정한 독립영웅인가? ... 물음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

나면서 그간의 왜곡된 역사교육과 그 역사를 정치화한 학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런 선동에 넘어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청맹과니로 살아온 부끄러움도 함께!



古下 宋鎮禹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

#송진우, #동아일보송진우, #고하송진우, #고하송진우와민족운동, #신성대, #동문선출판사,



신성대 논설위원 dmsssd@naver.com

저작권자 © 최보식의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